

십자가의 전쟁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을 때에 그 군중도 모두 따라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새 판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시오」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고 있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읍니다」하고 대답하셨다. (마가2:13-17)

지난 주에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중풍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세리인 레위를 불러서 따르게 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불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세리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중

의 원망의 대상으로서 요즘 같으면 국세청 직원, 옛날에는 아전이라고 해서 국민의 경제적 맥박을 쥐고 한 푼이라도 많이 거둬내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의 도리로써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의무적인 일이지만 무슨 세 무슨 세 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가는 것을 달갑게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나라에서는 세금을 로마제국에 바쳤기 때문에 세리에 대한 민족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제국에 바치는 일은 마치 유대민족의 반역자인양 간주된 것도 지나친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우기 민족정신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타개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리 가운데 하나인 레위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당신들의 스승인 예수는 이런 민족 반역자들, 세리나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이 당시로서는 타당했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 한 토막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의 선교적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보낸 일에서처럼 예수께서는 그 시대에 이미 쌓아올려져 있는 유대인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대민족 사이에 오랜 역사를 통해 구축되었던 계층 간

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타성적인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새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회 계층에 따라 차별하는 습성에 빠져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만 존중하고, 허술하고 힘 없이 밀려난 사람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퍼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무슨 집회에서든지 뒷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 석 자가 마스크를 타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위 네임 벨류(name value)가 있는 사람이면 우대하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버릇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때는 지금부터 90년 전 경인데 당시 교회는 부유층이나 권력층보다 먼저 농촌이나 빈민층에 같이 파고들어가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점차로 중산층으로 퍼져서 계층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래 개신교의 윤리 자체가 중산층의 윤리로 근면하고, 정직하고, 절약해서, 생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자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근면하고 정직하고 절약하면 자연적으로 그 생활이 향상되어서 중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초라하게 시작되었던 서울 시내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교회의 신도들의 생활 수준이나 목회 형태는 아주 저소득층에 속하

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어느 교회에 가 보아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나 교회 밖에 세워둔 자가용차의 댓수를 보나 중산층 이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의 역사도 이와 똑같은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이러한 재산이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겨우 쌓아올린 것이 무너지기를 원할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생활 체계를 확립해 놓으면 이 개인 생활 체계를 현상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 유지의 생활 태도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전에 어떤 동역 교역자 한 분이 찾아와서 요즘 교계 일부에서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가 아닌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어느 한편에 서서 강력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남 못지 않게 윤택한 살림살이를 할 것을 원하며 저소득층은 재벌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중산층의 생활을 원하고 있다. 문제는 먼저 중산층이 된 사람들, 예컨대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중산층에 머무느냐 하는 데 있다. 경제적으로 위를 향하는 중산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향하는 중산층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다시 말해서 부유층만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는 목사나 하는데 지도자의 성격 결정의 요지가 있다.]

만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체제가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축된 것이라면, 이러한 체제에 비판을 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정직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절약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그대로 계속하면, 그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려는 전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대립은 적어도 기독교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어느 한 당파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늦게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저들을 대변해 보자는 데 오늘 한국 교회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올 때에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예수는 그의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은 자기의 육신의 인척관계에서 미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제도를 생활의 중추로 삼는 한국인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성서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이것은 자가 당착에 빠지는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이 자가 당착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내포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서 다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별개인 듯 하나 인간의 자연스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도 없으며 거기에는 오로지 무관심과 냉소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보다 더 큰 죄는 무관심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남이 내게 무관심하다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결국 우리의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려면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한다거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배후에는 그 관심의 초점이 예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원수와의 사이에 아무 것도 없는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와 원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개입될 때만 이러한 철저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나와 나의 부모 형제 사이에 아무도 없는 인간의 자연적 관계에서는 서로 미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재될 때 부모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우정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나는 어려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친구를 가졌는데 그 중에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 동창들과 동역자들 중에도 깊은 우정을 가지고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대를 넘어 과거를 회상하고 이 친구, 저 친구들과의 인간 관계를 회상해 보면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연히 알게 되었으니까 친구가 되는 수가 있고 자주 만나다 보니 친구가 되는 수가 있으며, 나와 성격이 어울려 조화로운 친구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정말 참다운 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는 참다운 의미의 연대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야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향으로만은 따질 수 없는 공동 운명을 함께 감당하고 고난도 함께 감수할 때 신의가 있는 친구가 생겨납니다. 신의가 없는 우정이란 참으로 나약한 것이 되는데 이 때 신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자로서의 말씀과 그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도 단순한 인간의 감정에만 관계되는 사랑과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信)과 의(義)를 저버리는 부모 형제는 골육의 친척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보도에 딸이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개탄하고 음독 자살을 한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부도덕을 고발하는 부모들의 호소를 여기 저기서 듣게 되며 또는 부모들의 불륜을 고발하는 자식들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단순히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정당화되어질 수가 없으며 부모 형제라는 육신의 관계 사이에서도 믿음과 의가 결핍될 때 그것은 이미 부모 형제라는 관계를 깨뜨리고 만 것이 됩니다. 의로움과 믿음의 관계에서만 부모 형제의 관계가 성립되고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학원의 타락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스승에게 폭행을 하고 스승의 도를 벗어난 선생들이 교장 선생을 해치는 일 등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영향 관계인데 이것이 무너질 때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과 같은 사제지간의 흐뭇한 감정을 찾아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제 사제지간에도 믿음과 의로움이 없어지고 인간적인 갈등이 모든 것을 파괴했음을 말해 줍니다.

요컨대 예수께서 네 부모 형제를, 또 네 목숨까지를 미워해야 한다고 하신 뜻은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쌓

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믿음과 의를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며 선으로써 악을 이기라고 한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의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괴를 토할만큼 처절한 사랑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하인리히 뵐의 「휴가병 열차」라는 소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보다 더 간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왼 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대는데 이것은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원수에게 아첨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 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고 걸옷을 달 라면 속 옷까지 주는 것도 원수에게 아첨하는 속 내음을 가지고 있으니 따귀를 때린 사탄보다 이 경우에 뺨을 내미는 인간이 더욱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도 사랑하고, 또 부모 형제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입니다.

영어로 제자를 디사이플(Discipl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훈련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훈련이라면 언뜻 군사 훈련을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도리, 예수의 제자된 도리는 군인이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면 제자의 도리를 터득하는 때는 군사 훈련에서 많은 암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의를 위해서는 살신성인을 하는 훈련,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그 뒤를 따르는 때는 자기를 희생하고 큰 명분을 위해 조그마한 실리를 희생시키는 생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 하는 일, 부모 형제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일들은 천부의 재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훈련에서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빛 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난에 참여하고 성도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상적인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전우를 메고 상처를 고쳐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훈련이 아니라 실전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쟁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76. 5. 23 한빛교회)